

자원봉사활동으로 세상을 바꾼다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997년 6월에 <리우+5>라고 불리우는 유엔환경특별총회가 뉴욕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는 <의제 21>의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모임이었다. 회의결과에 의하면 의제21의 제4장에 명시되어 있는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에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21세기에 인류에게 부과된 과제는 지구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이다. 이 과제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을 절약하는 생산과 소비양식의 정착이다. 지구환경문제는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지구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 작은 실천의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바로 YMCA가 착실하게 전개하고 있는 녹색가게운동이다.

이 녹색가게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자기의 시간, 재능,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 오고,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자기자신도 보람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인 자원봉사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새롭게 맞이하는 21세기는 20세기의 단순한 연장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녹색가게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을 아끼는 생활운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웃의 문제를 염려하며, 지역문제를 생각하고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의 세계도 이들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되고 지속,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다.

유엔이 2001년을 국제자원봉사의 해로 정한 것은 바로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계속 기여하기를 바라는 일 것이다. 녹색가게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의 대열에 가담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다.